‘평당 3천만원’ 상무센트럴 자이 광주서 통할까

전용 스카이라운지·프리미엄 상영관 등 역대급 편의시설 눈길
30평대 10억원 육박…역대 최고 분양가에 흥행 예측 엇갈려
“분양 성공할 경우 광주 청약 평균 2600만원 넘어설 것” 전망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와 입주자들의 시선이 조만간 청약 접수에 나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 ‘상무센트럴 자이’로 향하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 ‘평당 3000만원대’를 내건 아파트 단지가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분양 성적이 향후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향방을 가르게 될 수밖에 없어서이다. 상무센트럴 자이가 분양에 성공하면 앞으로 광주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평당 26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상무센트럴자이’가 분양에 돌입,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4일이며, 이후 26~28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이다.

‘광주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내걸면서 입주자 전용 스카이라운지, 광주 최초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 ‘CGV SALON’, SPC그룹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이탈리아 운동기구 브랜드가 구비된 피트니스센터, 전 세대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 기본 제공 등 역대급 편의시설로 분양 전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평당 3000만원에 이르는 광주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 점에서 청약경쟁률을 비롯해 분양 성패에 이목이 쏠린다.

상무센트럴자이의 가장 작은 평형은 32평(84㎡)으로 분양가는 약 8억4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 사이로 형성됐다. 평당(3.3㎡) 분양가는 약 2800만원이지만 옵션가격이 4000만원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평당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대형 평수인 93평형(247㎡)은 분양가격만 29억1800만원(평당 3133만원)으로 각종 옵션을 더하면 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600만원대라는 점에서 두 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당장 평당 3000원대 최고가 분양가에 대해 지역민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워낙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데다, 대출 금리도 비싼 상황에서 광주에서 30평대 아파트를 10억원 가까이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대형 평수의 소규모 세대 일부 아파트는 고분양가로 청약에 나선 적이 있으나, 9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전례가 없었다. 광주에서 10억~30억원대 아파트가, 그것도 900여세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완판 실패’를 예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로,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 투자 자본에 의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흥행 결과는 성적표를 받아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분양경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분양 시기를 조율해오던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들 상당수가 상무센트럴자이 분양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단지가 분양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분양에 나서는 광주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는 26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임직원 노고 격려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

2011년부터 33회 행사 진행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시네마 광주점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명을 초청해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지역기업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소통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추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화 ‘범죄도시3’를 관람했다.

광주상의는 2011년부터 지역기업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까지 총 33회를 개최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문화행사 외에도 미래 신산업 전환 맞춤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초역세권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본격 분양

12개동 815세대…461세대 일반분양
여가·교육인프라, 주차여건 등 장점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2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일 모아엘가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계림동 12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815세대 규모다.

이중 461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에 나선다. 타입별로는 59㎡A 11세대, 59㎡B 43세대, 74㎡ 78세대, 84㎡A 188세대, 84㎡B 141세대다.

단지는 2만5000여 세대의 광주 동구 신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해 동구·북구청, 법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리단길’이라 불리는 동명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물론, 단지 바로 옆 총 7.9㎞의 ‘푸른길’이 조성돼 있어 여가를 즐기기 용이하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서방사거리, 광주역을 통해 시내·외 진출입이 수월하고, 도보 2분 거리 계림초, 광주고를 포함해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충장중, 동신여중·고, 산수도서관, 중흥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예정)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대당 1.76대의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 콘센트 60개, 33대의 급속 완속 충전 설비 등 주차여건이 뛰어나고,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 계약금 5% 및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계약자 전원 혜택 제공 등 지역 내 최고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북구 서암대로 205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마련, 2일부터 3일간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스타일러(3명), 로봇청소기(3명), 써큘레이터(20명) 등 경품, 선착순 라면 증정, 유아 동반 고객 장난감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분양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신세계, 침구·주방 등 트렌드 인테리어 상품 특별 할인전

‘메종 드 신세계’ 이벤트
오늘부터 최대 70% 할인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2일부터 생활·인테리어 용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메종 드 신세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메종 드 신세계’는 생활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오는 14일까지 운영된다.

우선 8층 본매장에서 오는 11일까지 ‘르크루제’ 파스타 샐러드볼(3만5000원), ‘빌레로이앤보흐’ 보스톤 와인 고블렛 아말피 2P(5만6000원), 위니아 제습기(WDH17GDB, 45만9000원), ‘알레르망’ 웰링 냉감패드 S(9만9000원)을 한정 할인 판매한다.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는 6일까지, 운현궁, 레노마, 클라르하임, 알레르망, 세사 등 침구 브랜드와 포트메리온, 휘슬러, 스켑슐트, 덴비, 닥터하우스 등 주방 브랜드가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또 본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실리트, WMF에서 키친 특별전을 연다.

광주신세계 ‘메종 드 신세계’에 참여하는 브랜드 ‘까사미아’ 매장에서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메종 드 신세계는 올해 들어 최대 행사로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노후된 가구, 가전, 침구 등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세무 신고

올해부터 비트코인도 포함

국세청은 1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까지 포함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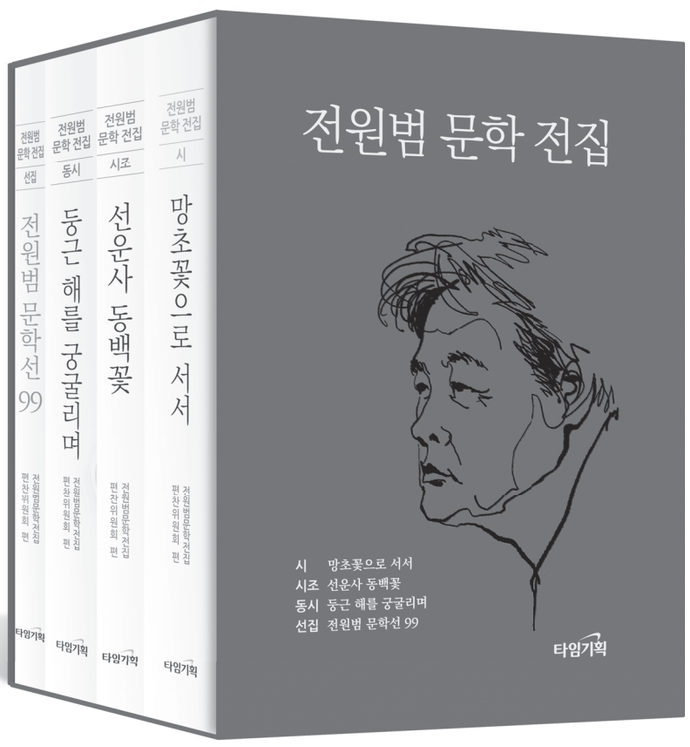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6월(1~30일) 중으로 보유계좌 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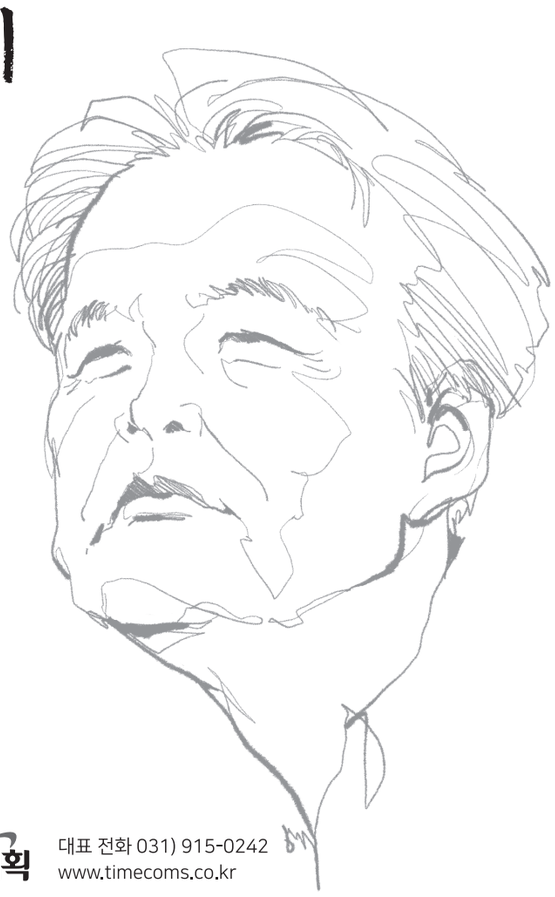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